

■ 부산 국제 모터쇼 가보니...



기아차는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쏘울을 기반으로 한 콘셉트카 '트랙스터'를 선보였다(왼쪽).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현대차의 '아반떼 쿠페'(오른쪽 위)와 르노삼성의 소형 크로스오버 콘셉트카 '캡처'(가운데), 한국계 미국인인 휴버트 리(맨아래 오른쪽)가 디자인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더뉴 M클래스'(아래).

국산 콘셉트카, 수입 SUV '세대교체'

6개국 96개사 175대 국내 시장 공략

내달 3일까지 인터넷·모바일 생중계도

부산국제모터쇼가 열리고 있는 벅스코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각축장이자, 예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수입차 브랜드의 신차를 대거 앞세워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수입차에 쏠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콘셉트카와 친환경차 등을 전면 배치해 맛대응하고 있다. 서울모터쇼와 함께 격년으로 열리는 부산모터쇼는 "바다를 품은 녹색 자동차의 향배"를 주제로 다음달 3일까지 열린다. 올해는 6개국 96개사가 참가해 151개 모델, 175대의 차량을 선보이고 있다. 2001년 부산모터쇼가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개막 4일째인 28일 누적 관람객 수는 50만명에 달했다.

기아 콘셉트카 'GT' 아시아 첫 공개 = 기아차는 '감성 디자인' 콘셉트를 강조했다.

휴먼푸드 럭셔리 스포츠세단 콘셉트카인 'GT'를 아시아 최초로, 쏘울을 기반으로 한 3도어 콘셉트카 '트랙스터'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또 단아한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소형 크로스오버(CUV) 전기차 콘셉트카인 '네모'도 선보였다.

이삼삼 기자는 "이번에 전시한 GT·트랙스터·네모 등 콘셉트카는 기존의 전 세계 디자인 네트워킹을 통해 제작됐고 앞으로 기아차가 발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디자인을 총괄하는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은 "한국 고유의 전통 디자인 언어를 디자인 인격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쏘울에서 표현된 개방감·역동성 등 기아차 디자인 DNA의 연속성을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아반떼 쿠페'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김중호 현대차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선

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반떼를 기반으로 더욱 강력하고 세련된 모습을 갖췄다"며 "9월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렉스턴의 후속차 '렉스턴W'를 세계 최초로 내놓았다. 한국GM은 체보라 콘셉트카인 '코드130R'과 '트루 140S'로, 르노삼성은 소형CUV 콘셉트카인 '캡처'와 내년 양산에 들어가는 전기차 'SM3 Z.E.'로 차별화를 꾀했다.

◇한국인이 디자인한 벤츠 '더뉴 M클래스' = 가장 눈길을 끈 수입차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더뉴 M클래스'다. 7년 만에 출시된 M클래스의 3세대 모델로 부산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이 차를 한국인이 디자인했기 때문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휴버트 리(39·한국계 이일환) 메르세데스-벤츠 미국 디자인센터장은 "신형 M클래스는 남성적이고 터프한 느낌을 가미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국내 수입차 시장 1위인 BMW는 참가업체 중 가장 많은 9종의 신차를 동원해 물량공세를 펼쳤다. 640i 그란쿠페, M5 등 예전 SUV, 하이브리드카를 망라했다.

아우디는 콤팩트SUV 'Q3'를 대표선수로 내세워 기존의 Q5-Q7과 연결되는 SUV라인업을 완성시켰다.

자존심 회복에 나선 도요타는 전 시차량 10대 중 6대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채우면서 '하이브리드 속도'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인피니티는 7인승 럭셔리 SUV인 '올뉴 인피니티 JX'를 아시아 최초로 선보였다.

◇매일 승용차 1대 경품으로 = 행사장 1층 로비에는 포틀러원(F1) 코리아그랑프리에서 마련한 실제 F1경주차량을 전시 중이다. 컨벤션홀 3층에서는 람보르기니·페라리 등 30여대의 튜닝카가 전시되는 '튜닝카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야외전시장에서는 카오디오 페스티벌, 무선 모형자동차 경주대회, 어린이들을 위한 페이스페인팅이 펼쳐지고 있다.

승용차 1대를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경품 추첨행사는 매일 오후 5시 30분 전시장 3층 입구에서 열린다. 행사장을 찾지 못하는 자동차 마니아들을 위해 부산모터쇼 인터넷(www.bimos.co.kr)과 모바일로 생중계하고 있다.

/부산=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경기 좋아지려나

5월 소비자심리지수 107... 15개월 만에 최고치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SD)가 4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보다 4포인트 상승하며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5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107

로 전월(103)보다 4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해 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7을 기록한 이후 15개월 만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넘어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낙관적임을,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6개월 전 생활형편과 현재 생활형편을 비교한 현재생활형편지수는 92로 기준치를 밑돌았지만 전월보다 5포인트 상승했으며, 6개월 후 생활형편을 예상하는 생활형편전망지수도

5포인트 오른 102를 기록했다. 현재 가계수입 대비 6개월 후의 가계수입을 예상하는 가계수입전망지수(101)도 4월보다 4포인트, 6개월 후의 가계지출을 예상하는 소비지출전망지수(107)도 2포인트씩 상승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0, 향후경기전망지수는 92로 전달보다 10포인트, 6포인트 각각 올랐다.

또 향후 경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료 '유가 등 물가수준'(-4%포인트)은 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수출·환율 등 대외요인(+5%포인트)은 영향이 커질 것으로 응답했다.

/이음미기자 emlee@kwangju.co.kr

'New 하이트' 광주서 홍보

하이트 진로 내달 1일 유스퀘어서 프로모션

하이트진로(주)가 올 새롭게 리뉴얼된 NEW 하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강화하고 '아이스포인트'를 알리고 소비자들과 더욱 친숙해지기 위해 광주에 온다.

하이트 진로는 다음달 1일 오후 5시~저녁 8시까지 광주 광천터미널 유스퀘어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시민 참여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28일 밝혔다.

메인 행사에는 NEW 하이트 광고 모델인 김연아의 아이스포인트 댄스

공연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댄스를 배우고 퀴즈, 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날 행사는 'Let's Ice Point dance' 공연과 시민들이 전문 댄스팀과 함께 댄스를 직접 배우며 이벤트에 참여하는 '도전! 아이스포인트 댄스' 행사가 펼쳐진다. 이와함께 퀴즈 이벤트와 '박스맨을 이겨라' 게임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한 가족과 연인들을 대상으로 하이트 캔 모양의 캐리커와



즉석 사진을 촬영해 선물도 한다. 댄스 이벤트와 포토 이벤트에 적극 참여한 광주 시민들에게는 여름철 더운 날씨에 유용한 미스트, 물티슈 등을 사로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최재훈기자 lion@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이번 주에도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논란과 유럽사태 해결 과정 관련 뉴스들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좌우될 전망이다. 지난주 EU 특별 정상회의는 주요국들의 견해 차로 가시적인 성과 없이 마감됐다.

그러나 유로존 도입 아이디어를 지지한다는 이탈리아 몬티 총리의 발언 언저리 주요 EU 정상들이 해법 마련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사태해결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최근 독일 내부에서도 메르켈 총리의 긴축정책과 EU 재정협약, 유로본드 도입 등과 관련된 보다 유연한 의견들이 개진되기 시작하는 등 향후

IT·자동차·인터넷 비중 확대

독일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일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요인이다.

최근 대규모로 프로그램 매물이 소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형 펀드로는 5월에만 1조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매도에 따른 수급적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주는 미국의 ISM제조업 지수 및 비농기 취업자수, 중국 PMI 등 G2의 핵심지표가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다. 유럽사태로 인한 글로벌 수요 위

축 우려가 크고, 최근 발표된 중국 경기지표가 부진했다는 점에서 주요 경기 지표 결과도 다소 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보다는 기술적 반등시도가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익개선세 속에 진행된 주가 급락세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크게 높아진 IT, 자동차, 인터넷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전략은 무리가 없는 시점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롯데제이티비 롯데제이티비는 롯데그룹의 Global 여행 기업입니다. **여행 문의 1577-6511**

무안출발 북경 4일/5일 349,000원부터

무안출발 상해 4일 399,000원부터

무안출발 상해/항주/소주 4일 469,000원부터

무안출발 상해/항주/소주 4일/5일 919,000원부터

3대 특급/서커스 북경/관리장성 4일/5일 349,000원부터

고품격VIP/노팁/노쇼핑 북경/관리장성 4일 629,000원부터

인솔차 동행/티포함 북경/관리장성 4일/5일 649,000원부터

유럽 서유럽 6국 12일 3,690,000원부터

동유럽 동유럽 4국 2,890,000원부터

동남아 5일 599,000원부터

롯데호텔링 인기상품 5일 899,000원부터

미주 하와이 5일/6일 1,090,000원부터

대양주 관광/사이판 8일 1,790,000원부터

대표전화 1577-6511 ▶ 광주전 :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컵, 롯데마트 수완, 북구점, 기아점, 무등점 ▶ 전남전 :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안점